ПЭК 8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ГОС.ВО США

황금의 예술

3 - AUG - 9
Copy ______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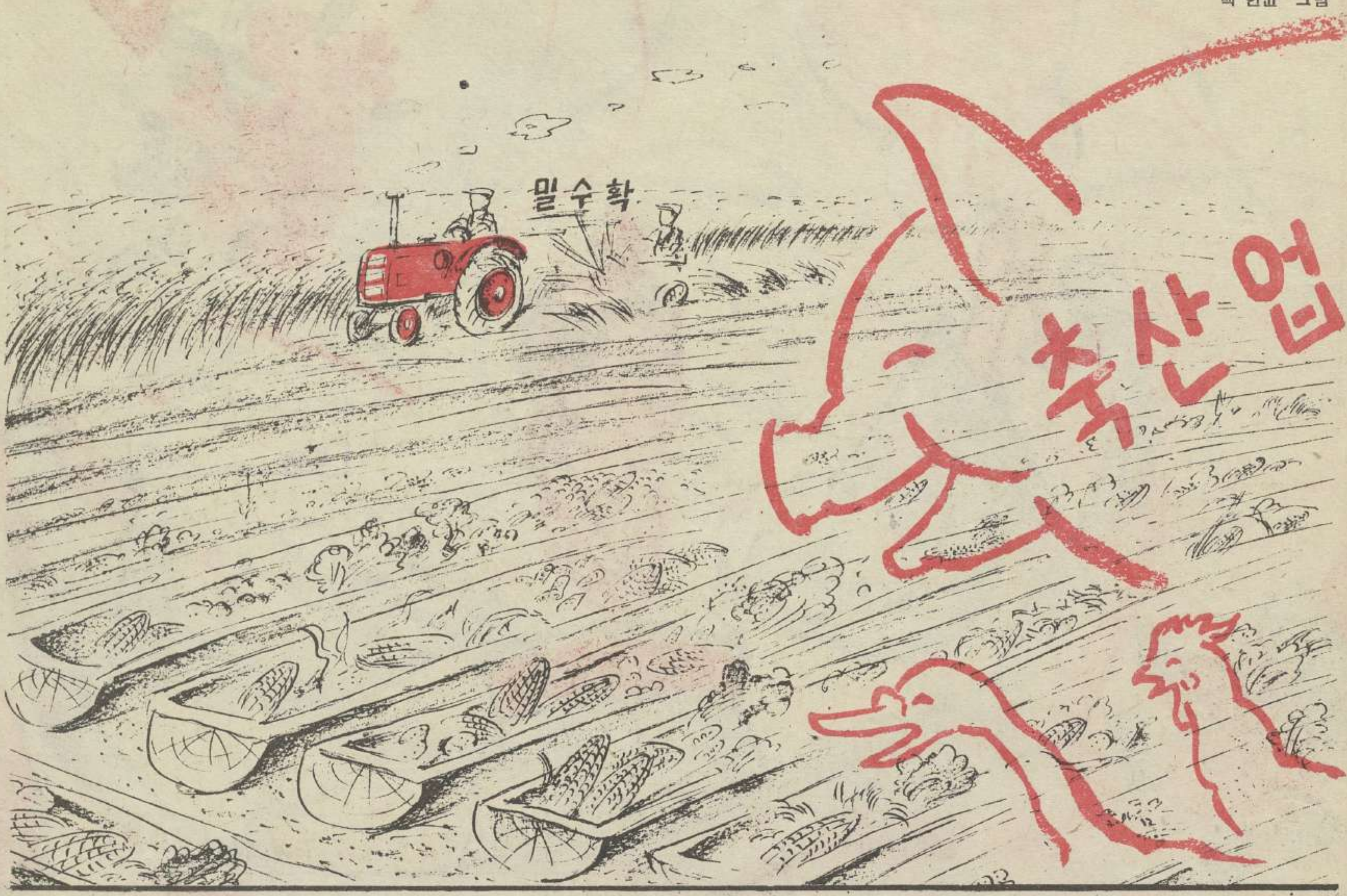
화살

1959년 8월 하반호 (108)

허 능택 그림

고랑마다 구유통

백 인균 그림



가촌리 농업 협동 조합 에서의
가축 사양 관리

△ 지도 일'군들의 경우.

《돼지를 중합동 산마루의 축사로 모두 한데 모아야겠소》.

봄 해'빛이 따사로히 내려 비치는 4월 어느 한 날, 권 문갑 관리 위원장의 서리 같은 분부가 내렸다.

《돈사가 해결 안 됐는데요?》

《언제 돈사를 짓고 옮기겠소. 옮겨 놓고 보잔 말이요! 옮겨 놓고…》

벽을 문이라고 내모는 관리 위원장의 들어난 솜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동네에서 5 리 가량 떨어진 산마루에 있는 돈사에 검진도 하지 않은 동네 돼지들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급해도 검진은 해야겠습니다.》

수의 지도원이 근심스러워 검진을 제의해 보았지만 《돼지 사료가 없다》고 제의하면은 《그런 건 나에게 제의하지도 말라》고 하는 관리 위원장이니 돼지의 병쯤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좁은 돈사에 낯설은 식구가 갑자기 곱으로 느는 바람에 돼지 우리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만 못한 일에도 덤비기 잘 하는 돼지들이라 씩씩거리며 도루 뛰여 넘어 나오는 놈, 꿀꿀거리며 서로 물어 당기는 놈, 20 여일 밖에 안 되는 새끼 돼지를 큰 돼지와 한데 몰아 넣었으니, 큰 돼지는 새끼 돼지를 깔아 뭉개고, 힘 센 돼지는 약한 놈을 짓밟고— 이러는 통에 많은 새끼 돼지를 밟아 죽이고 분만기에 가까운 어미돼지들은 많은 새끼를 류산했다.

그 외에 병으로 돼지들이 자주 죽었고, 20 마리나 되는 돼지가 없어졌다.

《야단 났는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한담?》

《옳지, 범이나 승냥이가 물어 갔음이 틀림 없지—》

이 조합 지도 일'군들은 이 사고를 분석하기를 범이 물어 가고 승냥이가 물어 간 것으로 심산을 치는 데 눈으로 본 사람이 없으니 애꿎은 바가지를 범이나 승냥이가 뒤집어 쓰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연히 범을 탓하다가 봉산군 가촌리 농업 협동 조합 지도 일'군들이 《범의 꾸중》을 받지 않으려는지.

△ 수의 지도원의 경우.

이 조합 가축 진료소 수의 지도원 오 종백 동무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경우에 가축들이 있는 가축사보다는 관리 위원회나 진료소가 있는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사양공들은 가축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숨가쁘게 달려 내려와야 했다.

《돼지가 탈이 났는데요…》

《거야 사양 관리를 잘 못한 탓이지요. 기술 문제요! 기술 문제요! 기술 문제요!》

《무슨 병인지 도무지 먹지 않습니다.》

《요즘 페염이 도는데 페염이겠지— 다른 병이겠소?》

이렇게 수의 지도원은 진찰도 안 하고 덮어 놓고 열닷량 식으로 페염 진단부터 내린다. 페염이면 페니시링을 맞아야 하니까 위병인지 페염인지 진찰도 받지 못한 돼지는 페니시링 주사를 맞고 페염약을 먹어야 한다. 이처럼 숫한 돼지들이 페니시링 주사를 맞고 약도 먹었건만 폐사률은 달마다 높아만 간다.

페니시링이 만병 통치약이라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을 터인데—

《지도 일'군들이 가축 사양에 저렇게 무책임하니까 낸들 별 수 없지—》

《사료 문제도 해결 안해주는 걸— 나 혼자 안달아야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많은 리유만 앞에 내세우고 가축 방역 사업도 되는 대로, 사양 관리는 사양공들이 하는 대로— 치료 사업이야 페니시링이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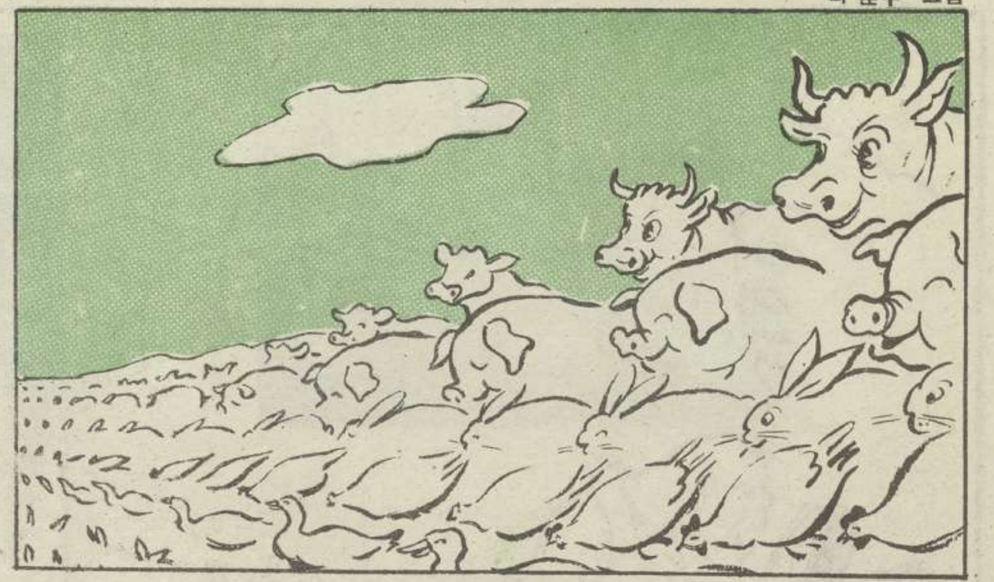
대체 이 조합 가축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김 상애

파종한 곳에서

고기가 솟아 난다

리 춘수 그림



그래도 하는 말이

안악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은 군에 내려온 도 인민 위원회 서 부위원장에게 말했다.

《지금 한창 후작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돌아오자 곧 관리 위원장들을 불러다 과제를 주었으니까요.》

《나가 봅시다.》

그들은 리들에 내려갔다.

《저걸 보십시오, 밀 후작지에 사람이 새까맣게 달려 붙은 것을! 아마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군 인민 위원장은 신이 나 조합원들이 일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사료용 옥수수를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팥을 심고 있었다. 웬 일이냐고 도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은 군 인민 위원장을 보았고 또 군 인민 위원장은 관리 위원장을 보았다. 그러나 대답을 해야 할 관리 위원장도 침묵을 지킬 뿐이였다.

축산 발전에 대한 정치 사업을 어떻게 했던지 남정리 류설리에서도 팥과 콩을 심었고 금강리에서는 사료를 심으라는 지시가 있은 후에도 계속 팥을 심어 밀 후작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하나도 심지 않았다. 그제서야 군에서는 정치 사업을 하노라고 했고 팥 심은 우에라도 사료용 옥수수를 덧 심도록 지시를 했다. 그러나 리들에 나간 지도원들은 몇마디 지시를 주고 군 인민 위원회로 돌아 와서는 전화로 정형을 료해하고 지도했다. 그래서 적기가 훨씬 지난 7월 24일까지도 사료 파종을 계획의 82% 밖에 못했다. 리들에 나가 보지 않기 때문에 7월말까지도 그들은 리들에서 사료 파종을 끝냈는지, 사료를 계획한 면적대로 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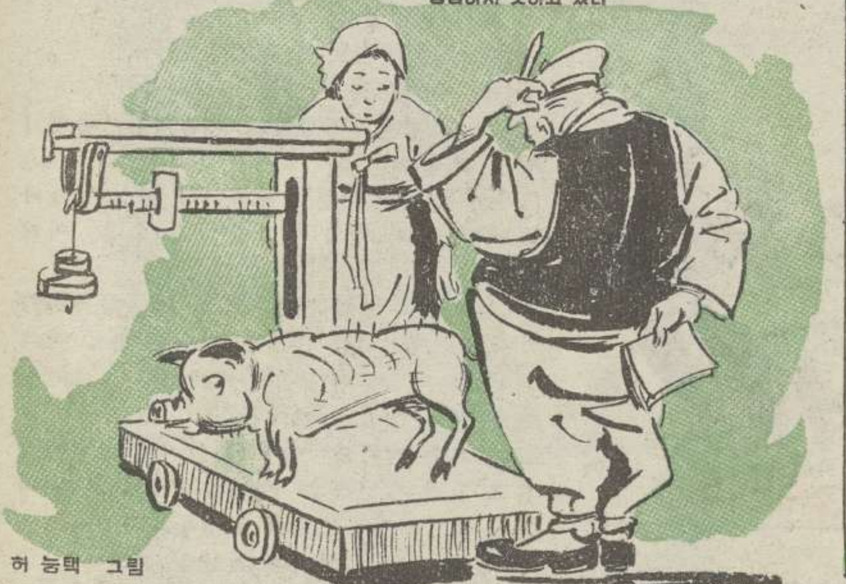
그런데도 농업부의 한 지도원의 말은 아주 걸작이다.

《그래도 사료 파종 면적은 계획대로 보장된 셈입니다. 다만 자급 비료를 못내고 시기가 늦어지고 팥 심은데다 덧 심어 수확을 제대로 내지 못할 뿐이지.》

리 윤봉

당연한 일

황해북도 봉산군 가촌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지난 기간 사료를 확보해 놓지 않은 데로부터 현재 가축들에게 사료를 정량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허 능택 그림

관리 위원장—참 조화로군, 돼지 꼴이 왜 이 모양이노
사양공—먹지 않고 크는 돼지가 어디 있나요

송주 협동 조합에서

허 능택 그림

황해북도 연탄군 송주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축사를 지어 놓지 않아 7월 말에 있은 하루 밤 비에도 많은 소가 행방 불명이 된 일까지 있다

관리 위원장—매개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오
소들이 왜 달아 났는가를

바다'가 마을에서

강원 일보사 정 도유 그림

이것 야단 났구나, 우리 고장은 농사가 안되니!

아직도 일부 해안 지대에서는 수산업을 위주로 하지 않고 농업에만 매달려 있는 지도 일'군들을 볼수 있다

명목만 사료용

황남 은천군 신창리에 있는 농업 협동 조합에도 군에서 밀 후작으로 모두 사료용 옥수수를 심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리고 군에서 지도 성원들도 나와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회의 결정을 강연회며 담화며를 통해서 대여섯 번이나 이야기 했다.

얼마 후에 신창리에서는 밀 후작지 110 정보 중에서 44 정보에 사료용 옥수수를 심었다는 보고가 올라 왔다.

며칠 후였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도원이 신창리에 사료 파종 정형을 보려고 내려 갔다. 그때는 벌써 사료로 심은 옥수수들이 모두 나왔을 때였다

《어디에다들 사료를 심었소?》

관리 위원장이 대답했다.

그들은 옥수수 밭을 지나 또 한참 걸었다.

《아직도 머우?》.

《벌써 지나 왔는데요.》

《지나 오다니요? 언제?》

《이자 지나온 옥수수 밭이 사료전입니다.》

《방금 지나온 드문드문 심은 옥수수 밭 말이요?》

《예, 사료용으로 심은게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자를 나쁜 걸 심었거나 막 되는대로 심은 모양이구만요? 주작 옥수수도 이렇게 발아률이 낮소?》

《아닙니다….》

《왜 발아하지 않았나 어디 파 봅시다.》

그러자 관리 위원장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져 냉큼 숨어버리고 싶을만큼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알곡을 수확하려고 처음부터 드문드문 심은 것이 탄로되겠기 때문이다.

아무리 파헤쳐 봐도 발아하지 않은 종자는 보이지 않았다.

《왜 하나도 보이지 않소?》

《아마 이젠 다 썩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 위원장의 가슴에선 방망이질이 멎지 않았다.

후에 군 지도 일'군들이 이 리 농민들과 담화한 즉 한 작업 반장이 하는 말은 이러했다.

《사료를 그렇게 많이 심어 뭘 합니까?》

사료를 많이 심지 않은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누가 고기를 많이 갖다 주었을 때에도

《고기는 그렇게 많이 해서 뭘 합니까?》

하고 말할 것인가? 인민들에게 육류를 더 많이 공급하라는 당의 결정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였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리 윤봉

《기를 때엔 무관심
먹을 때엔 대관심》

함북도 청진시 13중
차 정락 그림

함흥시 미술 협동 조합 장 현채 그림

피기는 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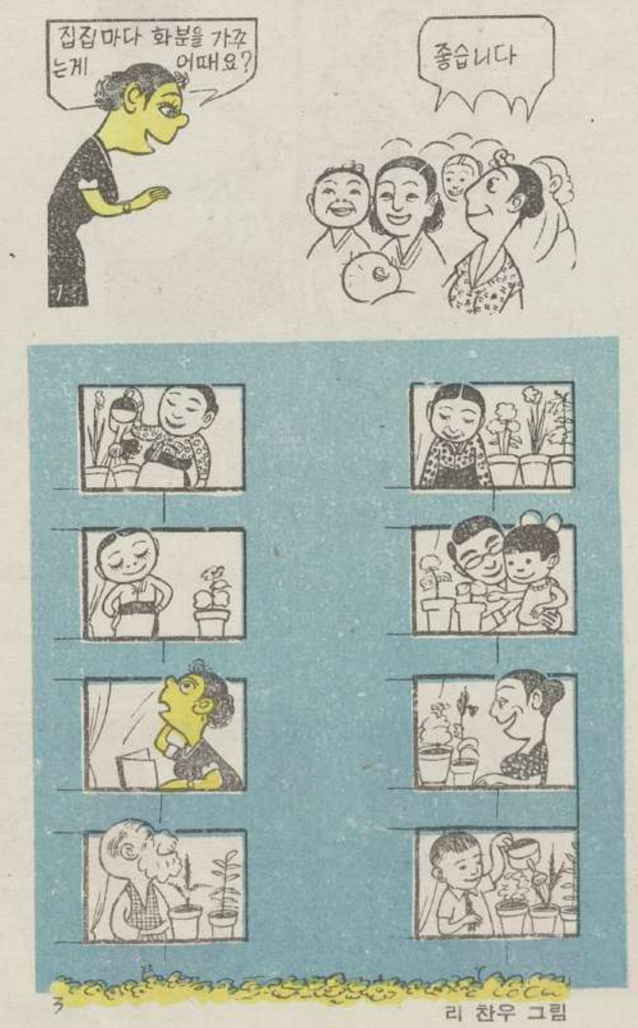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잎만 달렸는데 꽃은 어데 달렸어요?

비문화적인 문화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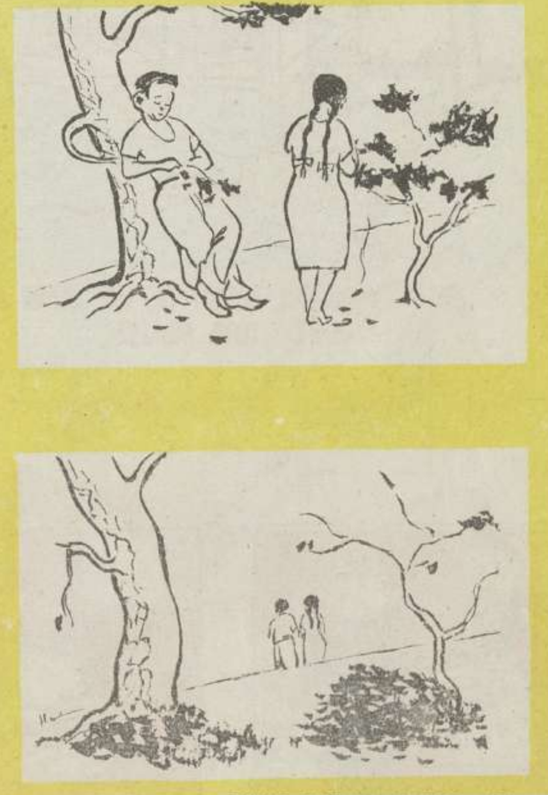
리 찬우 그림

말'공부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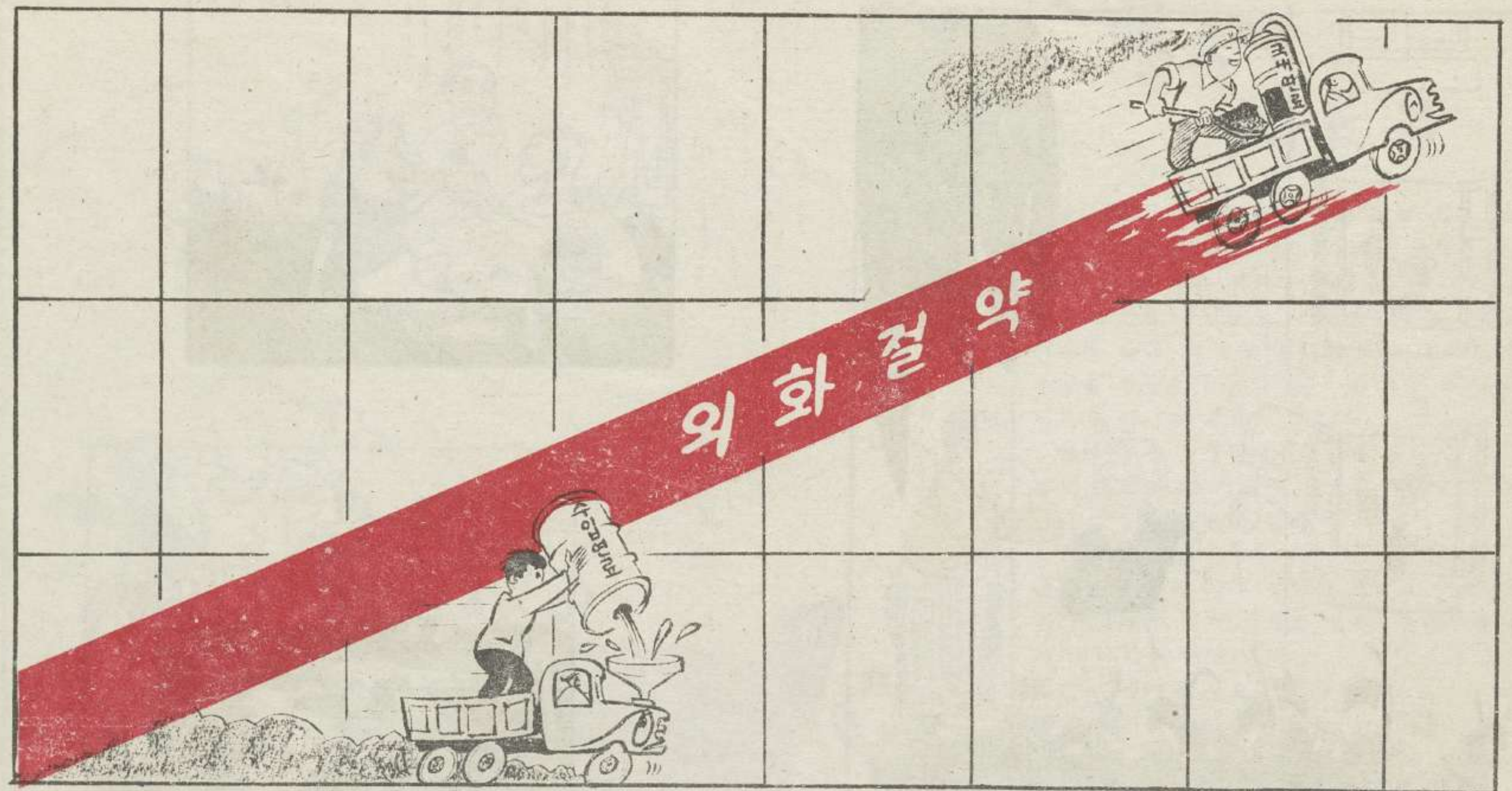


리 찬우 그림

나무도 사랑했으면 좋으련만……



평남도 강동군 신 봉옥 그림



원 광수 그림

《양수장에서》

변압기—동무! 귀중한 전기와 물을 랑비하지
말고 잠을 깨시요

국영 안악 농장 김 효심 그림

가정에서의 《관료주의》

—여보! 또 늦겠소
—빨리 나가시려면 우는
아이나 좀 봐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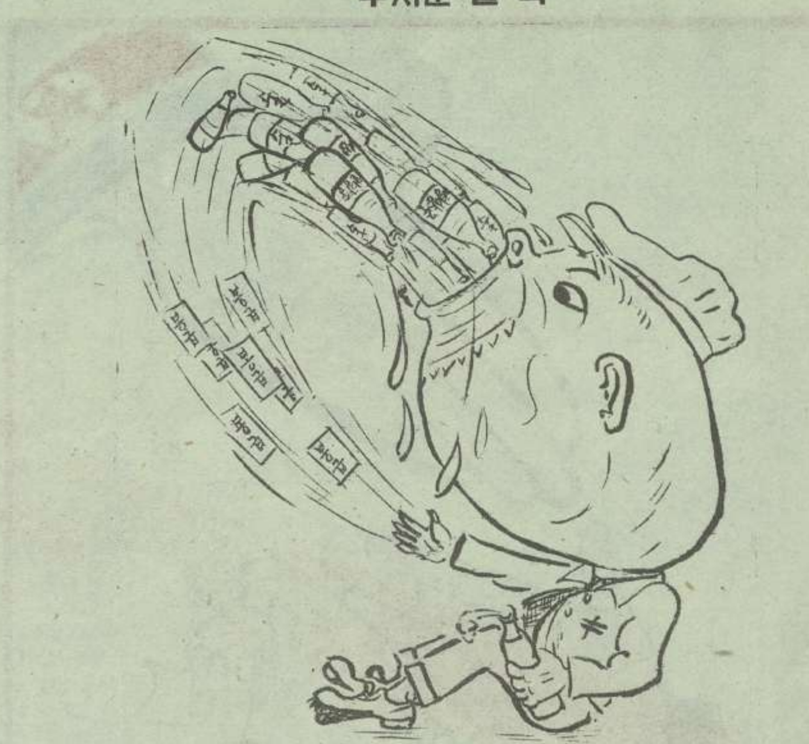
평양 방직 공장 김 두린 그림

《낡은 인습》 《낡은 생각》

리 찬우 그림

평양시 미술 대학 조선화부 조 정만 그림

무서운 술'독



평남도 교육 간부 학교 장 호군 그림

주인은 세수를 하건만

소—우리 주인 엉덩짝 좀 보았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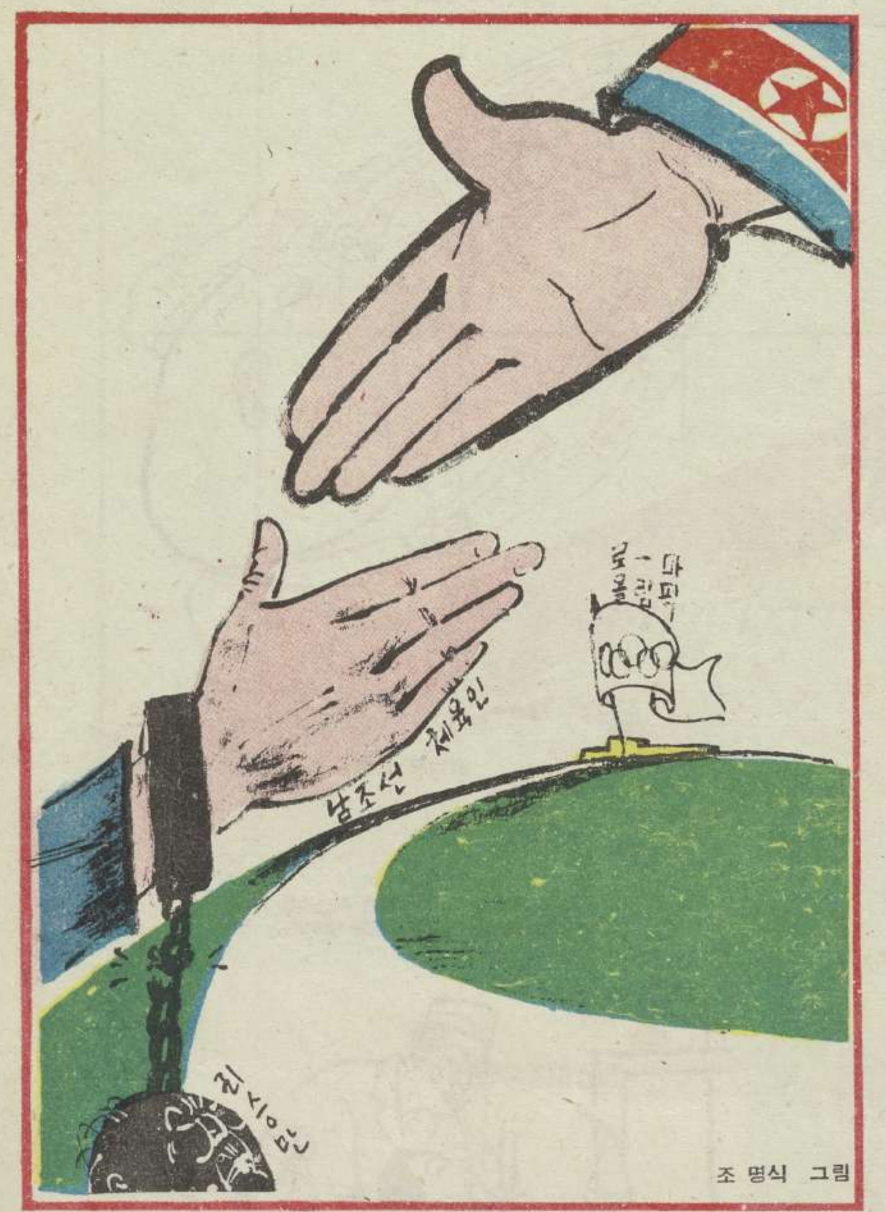
강원도 원산시 원산 토건 협동 조합 리 범재 그림

일부 리발 일'군들 중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공중 위생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평남도 강서 고중 교원 홍 경선 그림

청소 검열 전 후

평남도 남포 유리 공장 김 대권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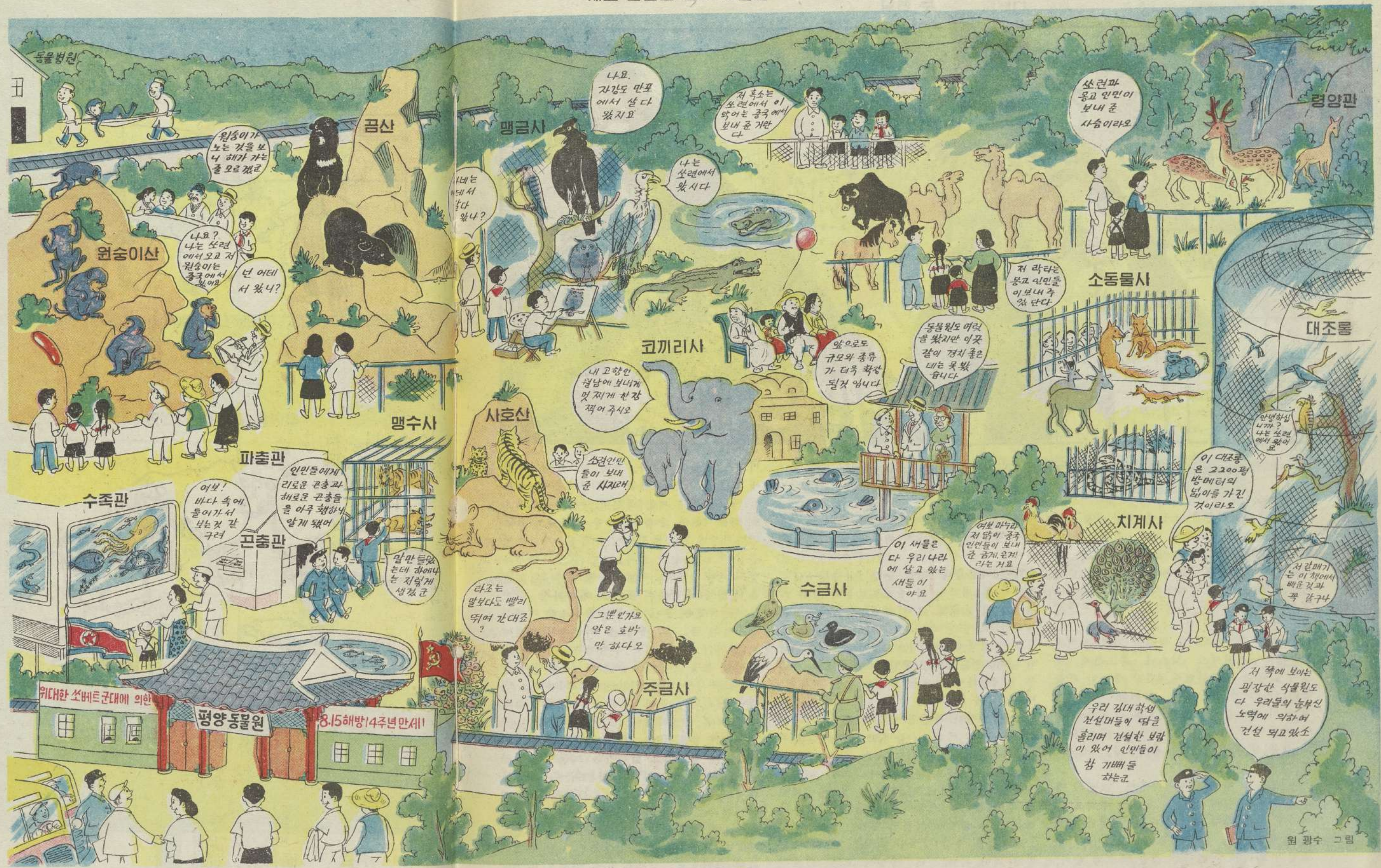


남조선 체육인들이여! 다음번 올림픽에는 함께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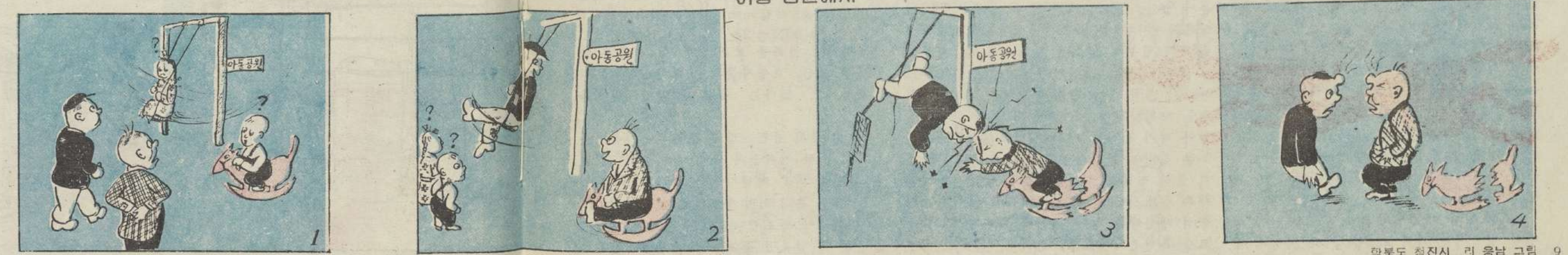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평양시 대흥동 김 진호 그림

새로 건설된 평양 동물원



아동 공원에서



함북도 청진시 리 응남 그림

두 현실

강원일보사 정도유 그림

미제의 남조선 지하 자원 략탈상

최 철수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에 한창 미쳐 날뛰고 있던 때인 1951년 6월에 미국 월가의 대변자인 《저널 오브 코머스》지는 《조선의 탕그스텐 자원에 대한 미국의 탐욕이 조선에서의 미국의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일이 있었다.

동 지는 이 탕그스텐 광산이 미국 진지의 배후인 남조선에도 있으나 북조선에 더 많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광물 중의 하나이며 우량질의 강철을 생산하는 데 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채굴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실토한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였다. (《따스 통신》 1951년 6월 28일)

이 보도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풍부한 지하 자원에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동시에 바로 이러한 강도적 탐욕이 조선 침략 전쟁을 일으키게 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는 것을 폭로해 준다.

3 천리 금수 강산 이르는 곳마다에 깔려 있는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지하 자원에 미제의 략탈의 마수가 뻗친지는 이미 오래다. 1882 년에 무능 부패한 리조 봉건 통치층을 위협 회유하여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강요한 미국 강도들은 1890년대에 이미 우리 나라의 운산 금광, 수안 광산, 홀동 광산, 고진동 광산, 강원도 화천 광산, 강릉 광산 등의 채굴권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금 은 보화를 제멋대로 파내 갔었다.

그 후 일본 제국주의 강도와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여 조선의 지하 자원에 대한 략탈이 불가능하게 된 미제 강도놈들은 자기들이 기르고 있던 주구 리 승만에게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힌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의 대'가의 일부로 수다한 리권들과 함께 운산 금광의 《매도 계약서》를 매국노 리 승만으로부터 받는 한편 미국인 싸뮤엘 브이 떨버란 자를 장래에 조작할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소위 광업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로스안젤스에서 발행된 영문 신문 《조선 독립》 1945년 1월 7일부 및 《샹하이 이브닝 포스트 앤드 머큐리》 1945년 3월 23일부).

조선의 지하 자원에 대한 미제 략탈자들의 《관록》은 이만한 설명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8. 15 후 남조선에 기어 든 미 제국주의자들의 호주머니 한 구석에 리 승만에게서 받아 둔 계약서들이 간직되여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키 어렵지 않다.

남조선을 무장 강점한 미제는 양의 우리 안에 기어 든 굶주린 승냥이 모양 이곳의 지하 자원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하는 길에 들어 섰다. 놈들은 1946년에 이미 2,500 만 딸라의 《차관》을 남조선에 강요하고 그의 대'가의 일부로 남조선 탕그스텐 총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소림 광업 회사》 산하의 녕월 상동 광산과 달성 광산의 개발권을 략취하였다. 자기들의 잉여 상품들을 팔아 먹기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산업과 농촌 경리는 파괴하면서도 유용 광물과 특히 군사 전략적 의의를 갖는 광물의 채굴량은 증대시켰다. 례하면 1957년의 남조선 중석 생산량은 일제 시기에 비하여 129%로 로상 흑연은 370%로, 활석은 110%로 증가되였다. 이 귀중한 지하 자원들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반출되였다. 특히 탕그스텐 략탈에 관심을 가진 미제는 1952년 3월에 남조선 탕그스텐에 대한 독점적 략탈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중석 협정》을 체결하고 1956년까지에만 2만 수천톤의 우량질 탕그스텐을 미국으로 실어 갔다. 그런데 이 가격은 당시 시세의 40% 미만으로써 일부 광산들은 생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광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뿐만 아니라 탐욕스런 미제는 남조선의 금, 은, 동광 등 귀금속의 략탈에도 혈안이 되고 있다. 미제는 기술단 및 준설선 등을 전라남도 대천리 사금광과 충남 태화 사광 등에 파견하여 1954년에만 1947년 생산량의 무려 10 배나 되는 1.6 톤의 금을 채취 략탈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의 지하 자원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략탈하고 있는가는 그들이 실어가는 귀중한 보화들의 가격이 똥금에 불과한데서 일층 명백하다. 남조선 출판물들에 의하더라도 금은 생산 원가의 68%의 가격으로, 톤당 350 딸라의 시세인 린상 흑연은 100 딸라 내외로, 활석은 국제 시장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망강은 75%, 아연은 67.5% 형석은 35.7%, 고령토는 51.4%로, 즉 생산비 이하로 략탈되고 있다.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7년 2호, 《재정》 1956년 5호)

세계에서 류례를 보기 드문 이 가혹한 략탈이 남조선 로동자들의 고혈의 착취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원조자》의 간판 밑에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의 지하 자원들과 우리 형제들의 등'골을 쳐먹는 미국 략탈자들이 물러 가고 인민이 정권을 틀어 쥐며 무진장한 남조선의 금, 은 보화들이 남조선 인민들 자신의 생활에 돌려질 때 남조선 동포들의 생활이 얼마나 흥겹고 윤택해지겠는가!

배'사공도 못해 먹을 세상

신 흥순

남조선에서 벼슬 나부랑이나 해 먹는 작자들은 여불 없이 공짜를 좋아한다.

어찌나 공짜에 이골이 났던지 음식점 같은 데서 공짜로 먹는 것 쯤은 보통이고 심지어 기차나 뻐스까지도 공짜로 타려 든다.

뚝섬으로 드나드는 나루'배가 있는데 배가 기슭에 닿자 사공이 선가를 받는다.

《여보십쇼, 선가를 주시고 내리십쇼》

《륙군도 몰라 봐?》

눈을 부라리고는 그냥 내린다.

《나리, 선가 내십쇼》

《해군 군속두 모르는가?》

《이거 뭐 해군이다, 륙군이다, 전부 공짜야?! 여보십쇼, 선가 주십쇼》

《경관한테도 선가를 받겠다구?》

경관은 도끼눈으로 흘겨 보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입안으로 욕설을 중얼거리며 간다.

《안내면 안냈지 욕은 무슨 욕이야? 여보십쇼, 손님 선가 계산해 줍쇼》

《누깔이 해졌어? 씨, 아이, 디두 몰라 봐?》

《저 손님 선가 주십쇼》

《세무 관리란 말야, 세무원!》

《원 이런 변 봤나? 전탕 공짜 손님 뿐이로구나! 엔장! 이거야 어디 해 먹겠나? 저기 저 손님 선가 내십쇼》

《선가는 무슨 선가?》

뚱뚱한 신사는 시침을 딱 뗀다.

《배로 건네다 드렸으니까 선가를 주셔야죠》

《증명서를 봐야만 알겠어?》

뚱뚱한 사나이는 무슨 종이 쪼박 하나를 사공의 턱 밑에다 드리 댄다.

《이건 무슨 증명섭니까?》

《나는 자유당 간사구 이 사람은 내 마누라야! 그리구 저 학생은 내 아들, 그 옆엣 녀자는 우리 식모, 그리구 저기 저 분은 내 사둔 령감이야! 자 어서들 내려!》

작으만치 6—7 명의 식솔이 증명서 한 장으로 쓱싹하고 가버린다.

《자유당 간사면 간사지 배 그냥 타란 법 있나? 되지 않은 자식! 손님 선가요》

《미군 통역관이야!》

그의 뒤를 따라 미군 여섯 명이 주욱 내린다.

《이건 뭐 군대다, 순경이다, 자유당, 미군 할 것 없이 의례 공짜로만 타려 드니 난 뭐 랭수만 먹구 사는 줄 아나? 개 자식들!》

사공은 그들의 뒤를 쏘아 보며 중얼거린다.

《뭐 시?》

허줄하게 차린 자가 배'전에서 벌떡 일어나며 사공 앞에 다가 선다.

《지금 뭐라구 했어? 어? 다시 말해 봐?》

《당신은 무슨 참견이시우?》

《나는 형사란 말이야, 느이 같은 불평하는 자들을 잡으려구 이렇게 차리구 댕긴다. 뭐야 개 자식들?》

형사는 다짜고짜로 사공의 뺨을 한 개 갈긴다.

《아니 말로 할것이지 때리긴 왜 때리우? 나도 그렇지 않소? 이 노릇해서 여러 식솔 먹고 살아야죠? 그리구 또 그 비싼 세금 물어야죠? 선주한테 배 빌려 쓰는 값 물어야죠? 그런데 모두 공짜루만 타려 드니 난 뭐 없는 집 팔아 내겠소? 그래서 하는 말이요!》

《잔소리 말고 가자!》

《어디루 가요?》

《경찰서루 말이다! 너같은 불온 사상을 가진 자에겐 본뗄 뵈여 주겠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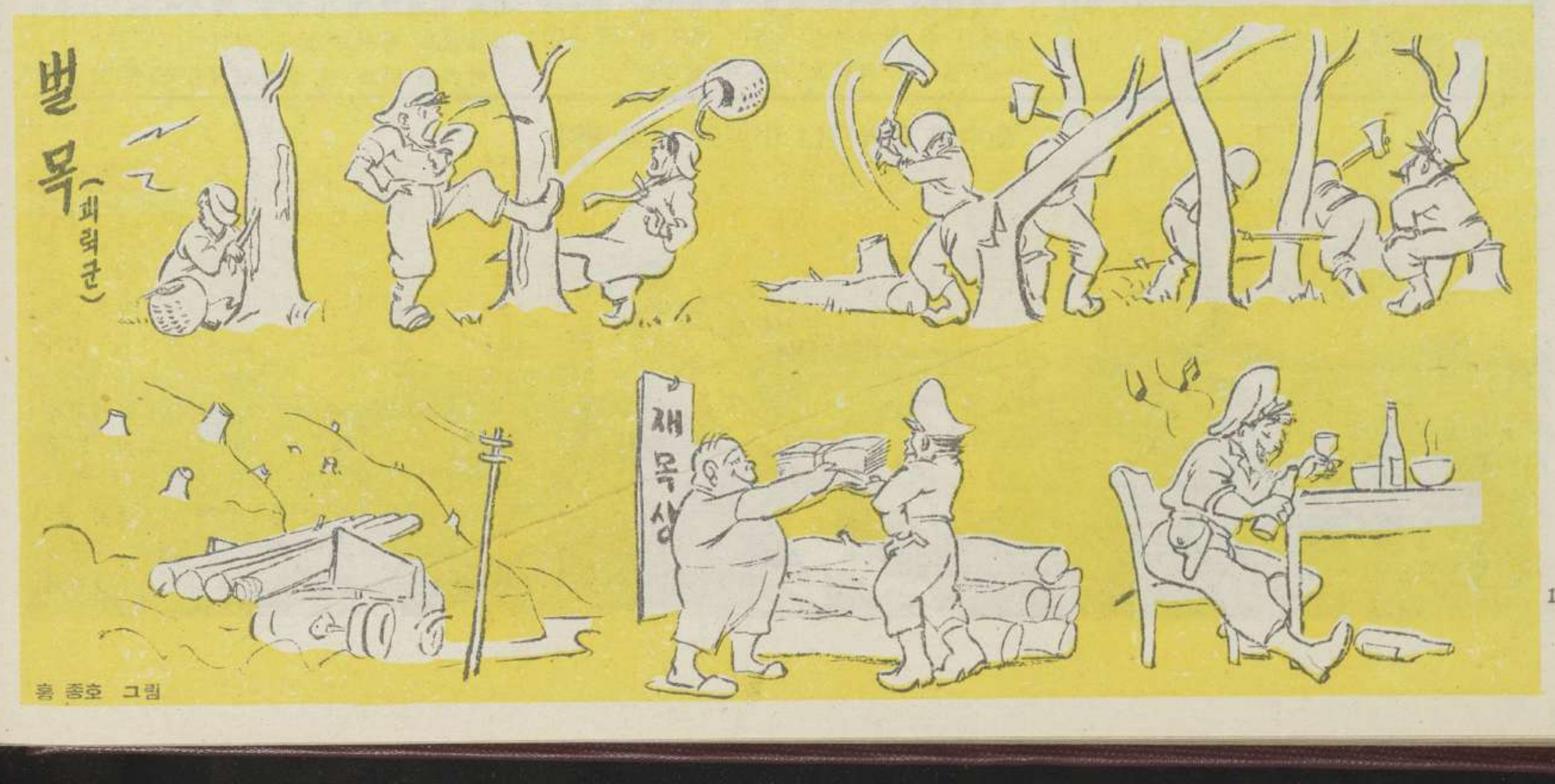
그리하여 뚝섬 배'사공은 일전 배 건네 주고 선가는 커녕 경찰서로 끌려 갔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웅얼거린다.

《흥! 네놈들이 인제 며칠이나 이러나 보자!》

깨졌다

남조선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에만도 6만 1천여명의 청년들이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괴뢰군의《충원 계획》을 위한 금년도 《징병 검사》를 거부하여 나섰다

백 인규 그림



홍 종호 그림

가짜 주인과 진짜 괴뢰

류 계환

백 인규 그림

서울 태평동에 있는 《국회 의사당》에서는 당대의 《정객》으로 자처하는 사나이들이 모여들어 벌써 10 여년째 《국사》를 《론》한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아무리 주먹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러도 거기서는 그 어떤 독자적인 의견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

작년 말에 야당계 《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조문 랑독도 없이 단숨에 통과시킨 유명한 신 《국가 보안법》만 하드라도 그것은 리 승만의 관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 고문의 손에 의해서 원문이 영어로 작성되였다는 것은 3 척 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것은 《국회 의사당》이나 경무대나 리 승만의 《국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룡산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결정되고 괴뢰 정부 각 부에 있는 미국인 고문들에 의하여 그것이 집행된다.

《고문 정치》란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저 장관실이 어딥니까?

—아, 일전에 농정국에 새로 부임한 사무관이시군. 장관실은 왜 찾으십니까?

—재무부에서 하곡 담보 융자 서류가 회송되여 왔어요. 결재를 받을려구.

—결재 받을려면 먼저 고문실로 가서요. (그리고 그 관리는 새로 부임한 관리 옆으로 다가와서 앞 뒤를 돌아 보더니 귀'속 말로 이렇게 덧붙혔다)

—모든 것은 고문실을 거쳐야 해요.

우리 농림부 장관은 로보트야요. 그야 우리 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름에 농민들에게 돈을 꾸어 주고 가을에 가서 리자를 쳐서 꾸어준 돈을 량곡으로 받아내는 이른바 《하곡 담보 융자》라는 변놓이를 하는데도 《농림부 장관》은 미국인 고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무부 장관》은 재정 지출에 배해서 역시 재무부에 배치된 미국인 고문의 싸인을 받아야 하고 또 미국인 경제 조정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관》들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연료도 《치안국》의 미국인 고문의 싸인이 없으면 보급을 받을 수가 없다. 만사가 다 이런 식이다.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군대를 감독하는 것도 경찰을 지휘하는 것도 산업, 재정 금융, 교통, 운수, 농촌 경리를 좌우하는 것도 모두 그들이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지 1958년 8월 12일 호가 다섯명의 미국 관리가 남조선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리유 없는 말이 아니다.

그 다섯명의 미국 관리란 남조선에 와 있는 《아이. 씨. 에이》(미국의 대외 경제 침략 기구) 공업부 직원을 두고 말한 것인데 그중 네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부산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40 개의 리 승만의 이른바 관영 기업체에 지령을 내리고 있으며 그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통제,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국 관리들이 모든 실권을 쥐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투자 조건을 마련하며 자원과 재산을 략탈하고 있다.

리 승만 정권이 생겨난 이후 100 여 명의 《장관》이 바뀌였다.

《장관》은 장기쪽 처럼 바뀌여도 주위에 변동이 안 생기지만 고문이 바뀌면 그 부의 수속 절차가 바뀌고 기풍이 달라진다.

중요한 공식 회담에서는 영어가 사용되고 중요한 문건은 영문으로 작성된다.

사실에 있어서 남조선에서는 미국 대사와 《유•엔군 사령관》과 경제 조정관의 3 두 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리 승만과 그의 관리들에게는 그들의 지령을 고분고분 집행할 저주로운 의무만이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남조선은 《작은 미국》이며 리 승만의 정권은 백악관의 대리점에 불과한 것이다.

리 승만은 자기 집단의 괴뢰적 성격을 엄폐하기 위하여 거기에 《대한 민국》이란 간판을 내 걸었고 또 그것에 자주적 외형을 부여하기 위하여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협잡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개괴리를 황모로 가장할 수 없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리 승만 정권은 인민들에 의해 이미 파산 선고를 당한지 오래다. 그것은 오직 미국 총검에 의해 간신히 여명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다. 리 승만이가 그처럼 미군의 철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제 침략군이 언제까지나 남조선에 버티고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마 자신도 믿지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리 승만의 《비극》이 있다.

홍수를 피했드니 이번엔 실업 홍수

조 명식 그림

어린 노예 흥정

오 흥택

부산시에 있는 《성모 보육원》 원장 박 태식은 미국 목사이며 《자선가》인 윌리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며칠채 뛰여 다녔다.

두달 전 윌리암이 《성모 보육원》을 찾아와서 미국에 《입양》 시킬 《좋은 고아》 30 명가량을 선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고아 선택 기준은 복잡하였다.

건강하고 귀엽게 생긴 것, 온순하고 눈치 빠른 것, 전혀 의지할 곳 없는 애를 골라 달라는 것이다.

《원장, 미국 사람 한국 어린이 좋아합네다. 미국 사람에게 양자로 들어 가면 잘 살 수 있습네다. 좋은 것 30명만 골라 주면 이번 올 때에 좋은 선물 가져 오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한국에야 고아가 수십만 명이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골라 잡을 수 있습죠.》

이렇게 하여 《성모 보육원》 원장은 건강하고 눈치 빠르고 귀엽게 생긴 고아들을 모으기에 바빴다. 원장은 고아들을 모아 놓고 제법 훈련까지 시켰다.

우선 영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워 주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입이 벌어지도록 지꺼려 댔다.

얼마후 윌리암이 몇 놈의 양키들과 함께 《보육원》을 찾아 왔다.

《원장, 고아들을 모았소?》

원장은 황송하다는 듯이 《네》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원장은 고아 30 여명을 윌리암의 앞에 줄지어 세웠다.

원장은 고아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웨쳤다.

그러나 웬 일인지 고아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다 외면하여 버렸다.

윌리암은 교활한 여우처럼 껄껄거리며 고아들을 구슬리기 시작하였다.

《오, 미국 사람 무섭지 않소. 미국은 하느님의 나라, 부자의 나라요. 미국 가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소》

원장은 열심히 통역하면서 덧붙여 해설까지 하였다.

《너 이름이 뭐지》

윌리암은 앞에 선 눈알이 또렷또렷한 남자 아이를 붙잡고 물었다.

《박 명길》

《호오—똑똑하오 똑똑하오. 미국 가면 좋은 사람 되오》

《난 미국엘 안가겠어요》

박 명길 소년은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또렷이 대답했다.

《호오—미국 사람 좋은 사람이요》

《아니예요. 우리 어머니를 미국 사람이 죽였어요》

박 명길은 증오에 찬 눈으로 윌리암을 곧바로 쳐다 보았다.

《오— 원장, 빨갱이요.》

윌리암은 독기 찬 눈으로 원장과 박 명길 소년을 번갈아 보았다.

원장은 죄 지은 강아지 새끼 처럼 윌리암을 힐끈힐끈 쳐다 보면서 굽신거렸다.

《네, 이 소년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미국으로 가겠다고 벌써부터 야단 법석입니다》

원장의 말을 듣고 있던 고아들은 《우리도 미국엘 안 가겠어요》하고 소리를 질렀다.

원장은 당황했고 윌리암은 얼굴을 실룩거리면서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때 윌리암과 함께 온 매부리코를 한 양키가 윌리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윌리암씨 어린 노예로서는 조런 것들이 쓸 모 있는 거요. 저런 반항은 배'간에서 1 주일 간이면 훈련시킬 수 있소. 딸라값이 가는 거요, 무조건 넘겨 받읍시다》

《미국에 가서 반항하면 야단이요》

《본능적 반항은 훈련 여하에 따라 우리가 쓸모 있게 리용할 수 있소, 이번 장사는 잘 될 것이요》

《오케》

이리하여 윌리암 일행은 고아 30 명의 명단에 수표하고 다음날 아침에 자동차로 인계 받으려 온다고 약속한 후 돌아 갔다. 원장은 그 간의 수고를 찬양 받고 몇 푼의 딸라 찌꺼기를 얻었다.

다음날 아침 윌리암 일행의 자동차가 오기도 전에 《성모 보육원》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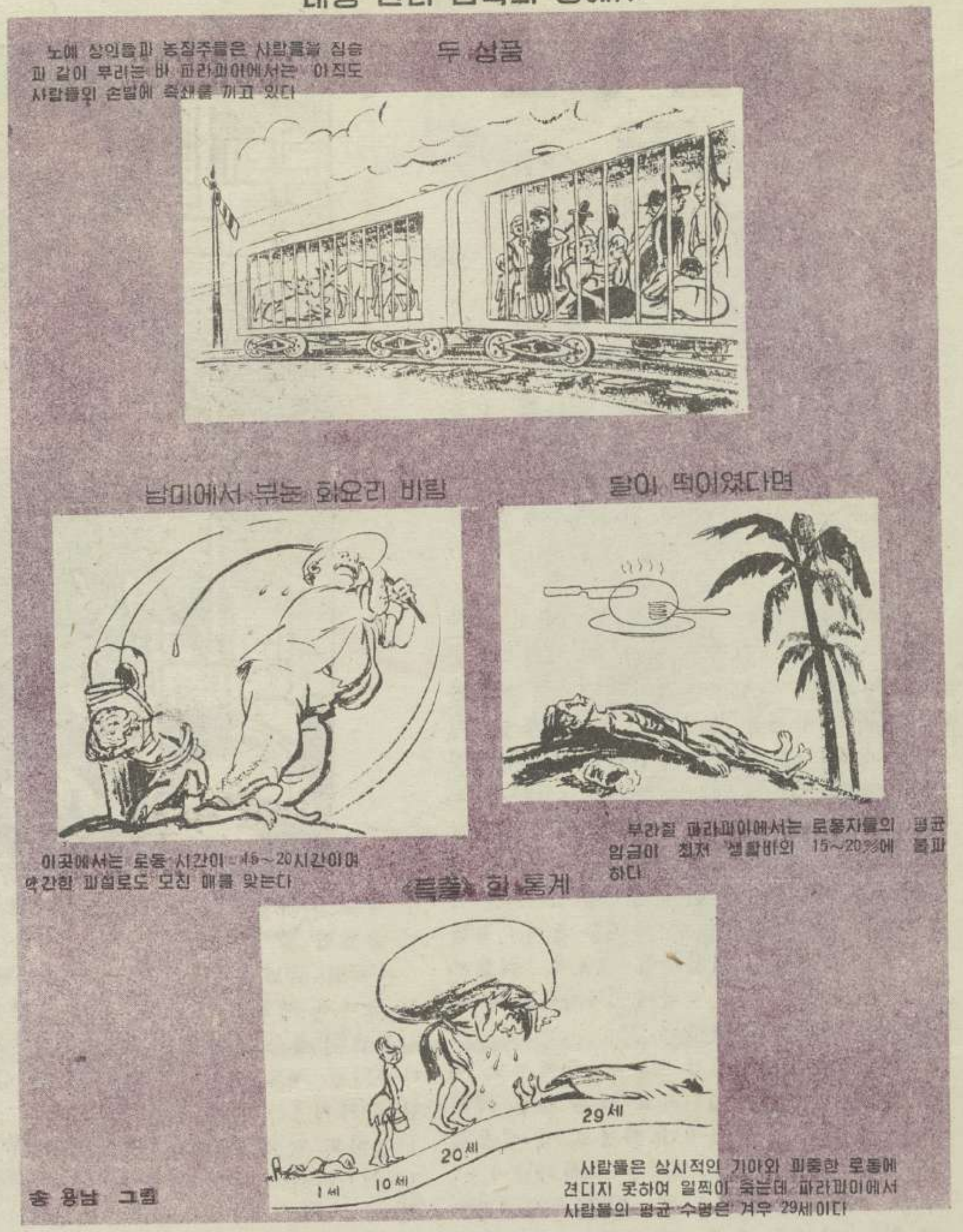
밤중에 고아들이 집단 도주한 것이다.

외부와의 어떤 련락의 흔적도 없이 고아 30 여명이 아침에 온데 간데 없어졌다. 원장은 몇푼 받은 딸라 찌꺼기로 장밤 술을 쳐먹다가 아침에 벌어진 소동 바람에 놀라 뛰쳐갔다.

경찰의 비상 소집이 단행되고 《보육원》의 직원이 총동원되였다. 몇명의 고아들이 경찰에 의하여 되잡혀 왔지만 많은 고아들은 자취조차 알아낼 수 없었다. 한참 법석을 치는 판에 윌리암 일행이 코'노래를 부르며 도착하였다.

원장은 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쥐구멍을 찾아 허둥거렸다. 작은 방에서 콩나물 처럼 우굴거리던 고아들의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윌리암은 30 여명 고아들의 명단을 적은 종이 쪽지를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닭 쫓던 개 울 쳐다 보는 격으로…

대양 건너 암흑의 땅에서



송 용남 그림

말할줄 아는 상품

로 철

크리스타•포웰—최근 뉴욕시에서는 이 이름이 갑자기 유명하여졌다. 지난 5월 이후 포웰의 사진, 그의 이름, 경력 소개는 매일 《뉴욕 헤랄드•트리뷴》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재되고 있다. 《뉴욕 헤랄드•트리뷴》지의 간이 판매대 마다에는 포웰의 큰 초상화가 네온싸인에 둘려 쌓여 반짝이며 이 신문의 가두 판매원들은 《우리의 포웰》이라고 쓴 완장을 두르고 분주히 쏘다니고 있다.

크리스타•포웰— 어째서 이 이름이 갑자기 뉴욕시에서 《저명한 인사》로 되였는가?

원래 《뉴욕 헤랄드•트리뷴》지는 펜타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 독점체의 어용 신문이다. 그러나 부수를 올리기까지에는 대 독점체와 그 졸개들의 《남다른 고초》가 숨어 있는 것이다. 각종 방식의 광고, 때때로 되는 무료 배포, 계속되는 현상 모집, 신문사 주최의 전국 미인 경기 대회 등… 한 명이라도 더 독자를 끌기 위한 이 각종 술책들이 없었던들 《뉴욕 헤랄드•트리뷴》지는 벌써 옛날에 독자난으로 폐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 형형 색색의 상업 광고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현상 모집이다. 작년에만 하여도 이 신문은 무려 16 번이나 현상 모집을 조직하였다. 그중 제일 큰 것은 1 등 100명에게 《파수가 있는 정원과 텔레비존이 있는 별장식 주택》을 준다는 달콤한 상품을 걸고 《우리 신문에 실린 라체 미인 사진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준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문제를 내놓은 것이였는데 비록 그 《별장식 주택》을 따낸 행운아가 단지 한 명밖에 없었지만 이렇듯 이 현상 모집은 한때 수 많은 독자들을 거의 미치광이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면 금년에 이 신문이 조직한 현상 모집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어떤 것인가?

우선 상품부터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다름아닌 바로 크리스타•포웰이란 산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현상 문제는 어떤 것인가?

《크리스타•포웰. 금년 49 세. 1958 년까지 미군 륙군 소좌로 근무. 그 후는 고정된 직업이 없음. 길이 6 피드 2 인치의 건강한 미국 공민.

기술은 자동차 운전, 말타기, 격검, 총쏘기 등 모든 전투 기술을 소유함.

독자 여러분! 포웰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좋을려는지요?

이에 대답한 사람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1 등에 당선한 독자에게는 포웰을 1 개월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가 준비하고 있는 금년도의 가장 큰 현상 모집이다!

이 현상 모집은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를 인차 련상시키게 하여 준다.

《저명한 인사》 포웰은 기실 이 노예 제도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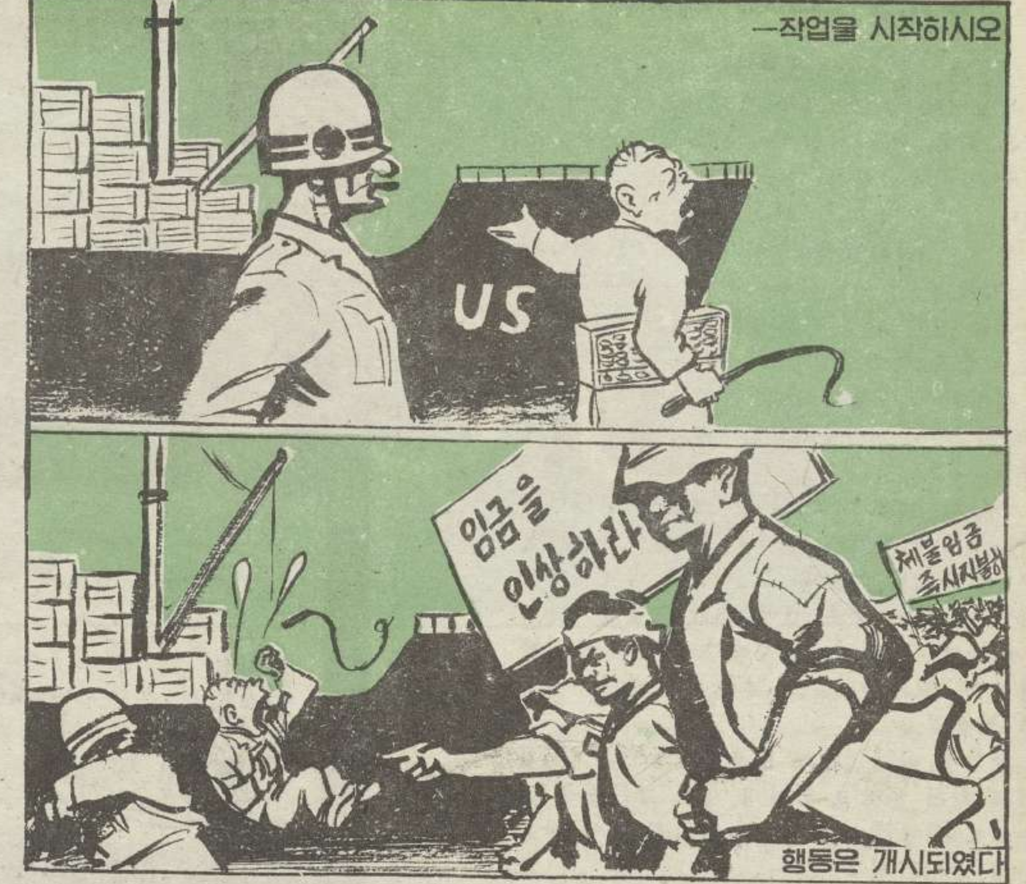
다만 다른 것은 이 신문이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포웰이 《말할 줄 아는 상품》이며《자원적으로》 이 노예의 《지위를 샀다》는 것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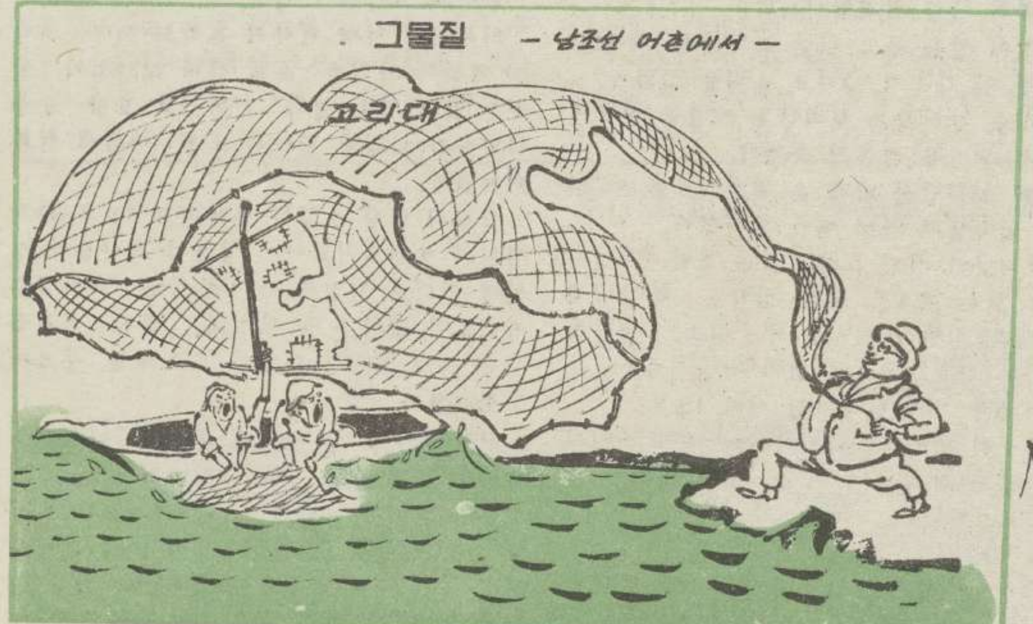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00 여년 전에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제도의 특징의 하나가 《사람마저 교환 가치의 대상으로 된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현대의 노예 제도—미국식 자본주의 제도는 그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

홍 종호 그림

부산 부두에서





허 농택 그림

《첫 과제》

리 찬우 그림

이 서적을 사형에 처한다

로 철

《옛날 어느 한 숲 속에 아주 고약한 승냥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승냥이가 재미 있게 놀고 있는 세 마리의 돼지 새끼를 습격하였지요. 한 마리는 검정 돼지였고 다른 두 마리는 흰 돼지였답니다. 그런데 검정 돼지 새끼는 몹시 령리하였기 때문에 인차 도망을 쳐서 살아났으나 흰 돼지 새끼 두 마리는 우물거리다가 그만 그 몹쓸 승냥이 놈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 미국 프로리다 주에서 발간된 동화집 《세 마리의 돼지 새끼》의 한 줄거리이다.

이 동화는 어린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이 동화가 프로리다 주 의회내 전체 대의원 각하들의 청천 벽력 같은 노여움을 사게 되였다.

《검정 돼지 새끼가 흰 돼지 새끼 보다 령리하다니 어데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누가 저자인지, 그 〈공산주의 분자〉를 당장 의회에 끌어 오너라》하고 각하 제씨들은 근 6 시간에 걸쳐 법석 고아댔다.

이 프로리다 주 의회로 말하면 1954 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흑인과 백인과의 교육을 각각 분리하여 진행할 데 관하여》 《흑인과 백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며 혼혈아들은 3 대까지 흑인으로 인정할 데 관하여》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집단 부락을 조직할 데 관하여》 등 인종주의 법령을 33 건이나 통과시킨 《자랑찬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날 대의원들의 토론은 다른 그 어떤 법령을 토의할 때 보다 각별히 열렬하였다.

그런데 경관들을 총동원시켰으나 동화의 저자인 크라인은 어느새에 냄새를 맡았는지 재빨리 숨어 버려서 그를 주 의회에 출두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의원 각하들은 주내에 퍼졌던 《세 마리의 돼지 새끼》란 책을 수집할대로 수집해서 연단에다 쌓아 놓고 《격렬한 어조》로 토론을 거듭한 후 다음과 같은 법령을 채택하였다.

《동화집 〈세마리의 새끼 돼지〉를 사형에 처하며 그를 불살라 버릴 데 관하여》

홍 종호 그림

이기고 맞는 경기

남조선에서는 체육 경기가 있으면 의례히 싸움판이 벌어져 추태를 연출하여 피를 보고야 마는 것이 전통으로 되여 있다

기자—부상 당해서 승리는 못했겠군요

선수—승리한 탓으로 이렇게 부상 당했다오

백 인균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662

발행 1959. 8. 23

(값40전)

8034
Хвальсаль